

유홍식 라자로 추기경. “사제의 신성함과 사명”.

성 호세마리아 에스κρι바의 사제 서품 100 주년을 기념하여 열린 강의.

사라고사, 2025 년 3 월 27 일

“지상에서 그리스도인의 사명으로서 자신을 거룩함으로 이끄는 길을 생각하지 않는것은 불가능합니다[...]. 성인이 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소명입니다. 역사의 어느 순간에 복음의 한 측면을 반영하고 구체화하는 것은 아버지의 프로젝트입니다.” (Gaudete et exsultate, 19) 교황 프란치스코는 이렇게 우리에게 상기시킵니다. 저는 그의 인사와 축복을 여러분에게 전하게 되어 기쁩니다.

지난주 스페인에서 사제성소 캠페인을 기념한데 이어, 오늘은 성 호세마리아 에스κρι바의 사제서품과 첫 미사를 기념하는 이 중요한 기념일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모든 사제에게 독특하고 성화되는 순간이지만, 우리 성인은 의심할 여지 없이 특별히 교화적인 방식으로 이를 경험했을 것입니다.

성 프란치스코 드 살레스가 가르친대로, 모든 소명은 거룩함으로 가는 길입니다. 사람은 하느님께서 맡기신 사명 곧, 하느님의 뜻을 이루는 일을 통해 거룩해집니다.

이것은 사제들에게도 적용됩니다. 사도적 권고 Pastores dabo vobis 의 결론은 우리에게 “거룩함을 향한 특별한 길로서 사제직을 살아가라”고 권고합니다. (82 항).

그러므로 우리에게도 거룩함과 사명은 하느님의 뜻을 분리할 수 없이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살도록 허락하지 않고서,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소명, 우리의 사제직을 온전히 행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것은 거룩하신 그리스도와의 관계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완수하는 데서 거룩함을 발견합니다. 거룩함과 사명은 서로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사제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대사제이자 영원한 사제이신 예수님께도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그는 최후의 만찬 후에 아버지께 드리는 기도에서 이를

우리에게 계시하셨습니다. “나는 그들을 위하여 나 자신을 거룩하게 하노라” (요한복음 17:19). 그의 거룩함은 아버지와의 일치, 즉 둘이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거룩함은 순종의 삶이요, 우리를 “위하여” 드리는 삶입니다. 그분의 몸은 우리를 “위하여” 주어졌고, 그분의 피는 우리를 “위하여” 흘렸습니다(루카 22:19-20 참조). 그는 자신의 양을 “위해” 목숨을 바치는 선한 목자입니다(요한복음 10:11 참조). 의미는 명확합니다. 그는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파견된 사람들을 위해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조에서 외우는 것처럼 “우리 인간과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함과 선교는 일치하며, 그는 그것들이 우리 안에서도 일치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들도 진리 안에서 거룩하게 되기를 바랍니다”(요한복음 17:19).

성 호세마리아 에스κρι바의 사제서품 100 주년을 맞아, “사제의 거룩함과 사명”이라는 주제에 접근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가 사제로서 어떻게 살았는지 관찰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삶의 사례는 추상적인 교리보다 더 가치가 있습니다. 이 주제에 대한 저의 지식은 지금 당장 적절한 기여를 할 만큼 폭넓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기념 기간 동안 여러분이 거룩한 사제로서 그의 길을 따르기 위해 노력하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의 증언은 여러분에게 교훈이 될 것이며, 오늘날 역사 속에서 거룩함과 사제적 사명을 살아가는 데 도움될 것입니다.

저는 그의 한 구절에 감명을 받았는데, 그 구절은 바로 우리 주제를 다루고 있었습니다. “사제 생활의 특징 가운데에서,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저는 사제 생활의 특징을 강조하고 싶은데, 그것은 변하기 쉽고 쇠퇴하기 쉬운 요소의 범주에 정확히 속하지 않습니다. 제가 말하고 있는 것은 사제의 봉헌과 사명 사이에 존재해야 하는 완벽한 결합입니다. 다시 말해, 개인적인 경건한 생활과 사제직 수행 사이에, 하느님과 사제 사이의 자녀적 관계와 사람들과의 사목적이고 형제적 관계 사이에 완벽한 결합이 있어야 합니다. 사제직 교령은 이를 반복해서 상기시킵니다. “저는 기도하지 않는 사제의 사목적 효율성을 믿지 않습니다.” (대화, 3 호)

간략하게 성찰하면서 우리의 시선을 사제이신 예수님께 집중해 보고 싶습니다. 히브리서에서는 그에게 이러한 칭호를 부여한 유일한 신약성서 기록이 나오는데,

여기서는 하느님의 말씀이신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시어 하신 첫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한 까닭에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에 오실 때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신께서는 제물과 예물을 원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저에게 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번제물과 속죄 제물을 당신께서는 기꺼워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하여 제가 아뢰었습니다. ‘보십시오, 하느님! 두루마리에 저에 관하여 기록된 대로 저는 당신의 뜻을 이루러 왔습니다.’” (히브리서 10 장 5-7 절).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에 오시어, 자신의 생명을 아버지의 손에 맡기시고, 자신을 온전히 아버지의 뜻에 맡기시어 자신에게 맡겨진 위대한 사명을 성취하셨습니다. 그 사명은 죄로 인해 닫혀 있던 하늘을 여는 것입니다. 하느님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사람들을 하느님께 전하는 즉, 분리의 벽을 허무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자신에게 이끌어 하느님의 자녀들로 이루어진 가족을 형성하여 서로 일치하고 아버지와 일치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명을 성취하기 위해, 그분은 지성, 정서, 에너지, 창의성 등 모든 인간적 구성요소를 갖춘 사람의 형상을 가진 인성을 받으셨습니다. 인성 덕분에 그분은 자신의 사명에 온전히 헌신하실 수 있었습니다.

희생제사, 제물, 그리고 홀로코스트는 과거의 일이고, 이제 그것들은 모든 의미를 잃은 것입니다. 새로운 제물, 새로운 제단, 새로운 성전이 있는데, 그리스도께서는 그 새로운 대사제이십니다. 그는 하늘과 땅을 화해시키기 위해 아버지께 드리는 살아 있는 제물입니다.

우리가 육신을 입은 말씀에서 아버지께서 그에게 맡기신 사명을 성취하는 데서 오는 관대함과 기쁨을 어떻게 인식하지 못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임무를 수행하는 건 엄청나게 힘듭니다. 마지막 순간, 일을 마무리해야 하는 마지막 몸짓을 해야 할 때, 예수님은 포기하시려는 듯합니다. “이 잔을 저에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여기서 “잔”은 바로 “하느님의 뜻”을 의미합니다. “마음은 간절하나 몸이 따르지 못한다.” (마르코 14, 36-38).

처음의 감격은 너무나 커서 두 번 생각할 것도 없이 “하느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당신의 뜻을 행하고자 합니다.”라고 했지만, 이제 그 실현은 고통스럽습니다. “큰 부르짖음과 눈물”의 시간이며, 고난을 통해 순종(그분에게 맡겨진 계획의 실현)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히브리서 5:7-8 참조). 예수께서는 “두려워하시고 당황하셨다”(마르코 14:33). 그는 그것을 고백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내 마음이 너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마르코 14:34). 피땀이 날 지경이며, 그 괴로움(극심한 투쟁)이 그를 죽음으로 이끕니다. (루카 복음 22:44 참조). 그는 하늘로부터 천사가 와서 그를 격려해주기를 바랐습니다. (루카 22:43 참조).

그러나 그는 계속 길을 가며, 비록 그것이 터무니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수행합니다. “제가 원하는 것을 하지 마시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십시오.” (마르코 14:36). “제가 원하는 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십시오.” (마태오 26:39). “제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십시오.” (루카 22:42). “무슨 말씀을 드려야 합니까? ‘아버지, 이 때를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 하고 말할까요? 그러나 저는 바로 이 때를 위하여 온 것입니다.” (요한 12:27).

예수께서는 당신의 첫 번째 말씀에 충실하십니다. “하느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당신의 뜻을 행하고자 합니다.” 정말 그렇죠,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요.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은 첫 말씀과 비슷한데, “하느님, 제가 당신의 뜻을 행하러 왔습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에게 마지막 말씀은 “다 이루어졌다.”(19:30)입니다. 텔레인(telein): 예수께서는 자신의 사랑을 극한(telos)까지 가져가셨습니다. “거기서 그분은 극단까지, 아주 끝까지, 아주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예상치 못한 일들이 벌어지는 힘든 길이었지만, 그는 자신의 순종을 다하고 놀라운 방식으로 사명을 완수했습니다.

루카복음에 따르면 마지막 말씀은 “아버지, ‘제 영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23:46)입니다. 예수께서는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아시고 평온하셨습니다. 그가 해야 할 일은 단지 자신의 삶을 하느님의 손에 맡기는 것 뿐입니다. 그가 세상에 온 순간부터 해왔던 것처럼요. 이는 극단적인 복종의 행위입니다.

마르코 복음과 마태오 복음의 경우는 다릅니다. 마지막 말씀은 더 이상 말씀이 아니고 단지 외침일 뿐이다. 그저 고통에 대한 단순한 외침으로, 앞서 말한 외침의 연속입니다. (마태오는 “저의 하느님, 저의 하느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습니까?”라는 뜻이다”. 마태오 27:46, 마르코 15:34). 이 외침은 하느님의 계획에 대한 충실하고 책임감 있는 인내력이 얼마나 멀리까지 갈 수 있는지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공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첫 말씀은 마지막 말씀과 일치합니다. 그의 삶 전체는 순종의 목적과 그 완전한 성취 사이에서 유지됩니다. “보십시오, 저는 당신의 뜻을 이루러 왔습니다.” (...) 이 “뜻”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단 한 번 바쳐짐으로써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10:9-10).

베네딕토 16 세는 2010 년 2 월 11 일 로마 교구의 본당 사제와 신부들에게 이 헌신을 설명하면서, 그리스도의 눈물, 올리브산의 고뇌, 십자가의 부르짖음, 그의 모든 고통이 그의 위대한 사명과 별개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바로 이런 방식으로 그분은 희생 제사를 드리며, 대사제로 행동하십니다. 이것이 그분의 대사제직을 실현하는 것이고, 그분이 인류를 하느님께 인도하는 것이고, 그분이 중재자가 되는 것이고, 그분이 대사제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거룩함이 무엇인지 보여 주셨습니다. 곧, 무슨 대가를 치르더라도 자기 자신을 온전히 바쳐 사명을 완수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성직자의 직권은 이렇게 실현됩니다. 우리는 그분에 대해 묵상하라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분의 성직자의 직권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성직자의 직권을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그분께서 성직 신권에 참여하여 자신의 사명을 계속하고자 하셨기 때문입니다.

사실, 저는 지금 2013 년 2 월 11 일자 사제의 사목과 생활에 관한 지침서를 간략히 언급하고 싶습니다. 이 지침서는 사제들이 자신의 사명과 거룩함에 대한 소명을 깊이 실천하는 데 매우 효과적인 도구입니다.

8 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사도들을 자신의 사명과 연관 시키십니다. 동일한 성직자직에서 선교적 차원이 존재론적으로 존재합니다. 사제는 선택되고, 봉헌되고, 그리스도의 이 영원한 사명을 효과적으로 현재화하도록 파견되며, 그는 그 사명의 진정한

대표자이자 메신저가 됩니다. 그것은 단순한 외재적 대표 기능이 아니라 구원의 은혜를 전달하는 진정한 도구가 됩니다 [...].

그러므로 성사적 봉헌을 통해 그리스도와 일치한다는 것은 사제가 하느님의 백성 안에서 정의되며, 사제가 교회의 머리이자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권위 있는, 사목적 힘에 그 나름대로 참여하게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제는 그리스도와 더욱 닮아가면서 자기 혼자가 아니라 그리스도 덕분에 형제들의 구원에 협력하게 됩니다. 이제 살고 존재하는 것은 사제가 아니라 그리스도입니다.

사제는 대리자로서 그리스도의 모습을 지니며, 필수적인 구원 활동을 담당하는 사목자가 되고, 구원에 필요한 진리를 전달하며, 하느님의 백성을 사목하고 거룩함으로 이끕니다.

그리고 제 생각을 이어가면, 사제는 바로 그 자신이 alter Christus 이기 때문에 persona Christi Capitis 에서 행동한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가 스스로에게 물어야 할 질문은, 사제가 alter Christus 라고 말할 때 우리가 무슨 말을 하는지를 알고 있는지의 여부입니다.

그것은 단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분과 동일시하고, 그분처럼 되고, 그분처럼 살고, 그분이 우리 안에 사시게 하는 것입니다.

성 호세마리아 에스κρι바가 쓴 것처럼 “사제는, 그가 누구든 언제나 또 한분의 그리스도입니다.” (길, 66). 그리고 그는 또한 이렇게 묻습니다. “사제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정체성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모두 alter Christus 일 뿐만 아니라 ipse Christus, 즉 또 다른 그리스도, 그리스도 자신이 될 수 있고 또 그래야 합니다! 하지만 사제는 즉시, 성사적 방식으로 그렇게 됩니다.” (영원을 위한 사제 강론, 1973년 4월 13일).

우리가 예수님의 사제직의 신비에 참여하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분의 삶과 우리 삶을 일치시키지 않는다면 우리는 사제가 될 수 없습니다. 사도 바오로의 표현을 빌리자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하라는 요구를 받습니다.

존재론적으로 “alter Christus”가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주신 것처럼 자신의 삶을 온전히 아버지와 형제자매들에게 바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께서는 가장 큰 사랑을

통해 대사제와 중재자가 되셨고, 그 사랑은 바로 생명을 주는 것이었으며,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 놓으셨습니다.

극단적인 자기 희생의 길을 따르면, 우리는 믿는 사람과 하느님 사이의 '중간자'로 자리 매김하려는 유혹을 받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우리는 그리스도의 순수한 투명성이 되어 믿는 사람과 하느님 사이의 직접적인 관계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즉, 모든 사람에게 아버지의 자비로운 모습과 그리스도의 복음의 기쁨을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요! 이것이 우리가 거룩함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것은 “봉헌된 몸”의 신비이며, “흘린 피”의 신비이며, 그것은 매일 우리 손 안에서 새롭게 됩니다. 이는 예수님의 신비이며, 동시에 그것을 기념하는 우리의 신비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바치신 하느님의 무한한 사랑을 깨닫고 경험하며, 우리도 우리의 생명을 바치면서 사랑하는 법을 배웁니다.

여기에 우리의 성화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제 후보자에게 빵과 포도주가 담긴 성반과 잔을 받을 때 전하는 말씀에서 분명히 언급됩니다. “성체 희생을 위한 거룩한 백성의 제물을 받으십시오. 여러분이 하는 일을 생각하고 여러분이 이룬 것을 본받으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신비에 맞추십시오. 이것들은 사제로서의 거룩함과 그들의 사명을 수행하기 위한 세 가지 필수적인 요청입니다.

첫 번째는 너무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제대에 올라갈 때마다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일상이 결코 우리 사제직을 슬프게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요청은 저에게 훨씬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우리가 축하하는 것을 따라해 주십시오.” 우리가 기념하는 바를 이해하고 본받으려면, 곧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세상에 바치신 선물, 즉 발을 씻는 행위를 잠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는 그분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에 대한 비유이자 예언입니다.

최후의 만찬 때 예수께서는 망토를 벗으셨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그가 하시는 대로 서로의 발을 씻으라고 명령하실 때, 우리 역시 서로가 하나되기 위해 모든 것을 “비워야” 하며, 심지어 우리의 삶을 바쳐야 (tithēmi)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산다면, 우리는 성찬례 때 빵과 포도주에 손을 얹을 때 우리에게 주어진 세 번째 사명을 이행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신비에 여러분의 삶을 일치시키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살면, 사제직은 우리 자신을 우리가 파견한 사람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 두지 않고, 오히려 그들과 나란히 서서 그들을 섬기도록, 형제들의 형제로 우리를 배치할 것입니다. 사제의 자리는 높은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가운데에서 그들과 모든 것을 나눌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기쁨과 고통, 문제와 어려움을 말입니다.

사제품을 받은 오푸스데이 회원들에게, -성 호세마리아 에스κρι바가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지만, 이것은 분명히 모든 사제들에게 적용됩니다- “봉사하기 위해 사제가 되십시오. 명령하지 말고, 스스로 빛나지 말고, 끊임없는 신성한 침묵 속에서 모든 영혼을 섬기는데 자신을 바치십시오.” (영원을 위한 사제 설교, 1973년 4월 13일).

“사제로서 우리는 엄청난 자비를 베풀어야 합니다, 엄청난 자비를!” 프란치스코 교황은 로마의 사제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제들은 양 떼를 보고 감동합니다. 마치 예수께서 목자 없는 양처럼 사람들이 지쳐있는 것을 보셨을 때와 같습니다. (...) 따라서 선한 목자의 모습으로 나타난 사제는 자비와 연민이 있는 사람이며, 백성과 가까운 모든 이의 봉사자입니다.” (2014년 3월 6일)

예수님처럼: 거룩하게 하기 위해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거룩해지지 않으면 거룩하게 하는 사명을 완수할 수 없습니다. 동시에 거룩하게 하는 사명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듭니다.

저는 특히 1985년 세계 주교 시노드 이후 교회론을 특징짓는 단어, 즉 신비, 친교, 사명에 대한 말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이 성 삼위일체는 성직 사제직의 정체성과 영성을 이해하는 열쇠로서 Pastores dabo vobis(12항)에서 다시 제안되었습니다.

신비. 그리스도와 교회의 신비를 표현하는 것으로 이해되는 성직 사제직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삶과 일치함으로써 그 형태를 갖습니다. 사제 기도문의 “그들 안의 나” 이것은 우리가 상기한 바와 같이 성직, 안수 의식 자체가 요구하는 바, 즉 “agite quod tractatis”입니다.

이 신비를 되살리면서 사제는 신자와 하느님 사이의 '중개자'가 되려는 유혹에 빠지지 않고, 오히려 그리스도의 순수한 투명성을 추구하며 신자와 하느님 사이의 직접적인 관계를 체험하도록 이끌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시는 중재자, 다시 말해 가장 숭고하고 완벽한 사랑의 행위로 모든 것을 주시는 중재자의 신비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낳으신 그리스도를 대신하고, 자신을 완전히 부인함으로써 아버지와 직접적인 관계를 맺는 행위에서 그분의 눈에 보이는 표징과 도구가 되도록 부름 받았습시다.

교회의 신비 안에서, 그리스도 자신의 신비에 접목된 성직 사제직 역시 '신비'로 남아 있습니다. 이는 우리를 감싸고 초월하는 실체이며, 순수한 은혜의 선물입니다.

친교. 그리스도와 교회의 신비를 되살리는 일에서 사제는 혼자가 아니라, 하느님 백성 전체를 대표하는 존재입니다. 그는 주교, 부제, 그리고 모든 신자들과 교감하며 직을 수행합니다. 이는 예수께서 사제로서 기도하신 "그들이 하나가 되게 하소서"라는 기도를 실천하기 위함입니다.

사제는 온 세상을 제대앞으로 데려옴으로써 세례받은 모든 사람의 은사가 표현될 수 있는 공간을 끊임없이 열어두고, 그리스도의 몸을 형성하는 공동의 사명에 함께 협력합니다(사제직분 교령, 9 항 참조).

사제는 영원한 대사제의 직을 이어가면서 일치를 이루고 실천합니다. 곧 거룩함과 사명입니다.

사명. 사도들은 부활하신 주님에 의해 땅 끝까지 파견되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그분과 함께 성벽 밖으로, 곧 신성한 구역 밖으로(히브리서 13:12 참조) 탈출을 감행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교회는 실존적 주변부로 이동하고 있다"고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사도 바오로의 표현을 빌리자면, "나는 모든 이에게 모든 것이 되었습니다." (1 고린도 9:22)라는 말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주신 성령이 온 세상에 뿌린 부활의 씨앗이 모든 사람과 모든 사람이 처한 상황에서 꽃을 피우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성스러운 구역을 떠난다는 것은 보편적인 대화에 자신을 열고, 자신의 삶과 명확한 선포를 통해 사랑이신 하느님의 현존을 체험하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분은

그리스도라는 최고의 선물을 통해 자신을 드러내고 알리셨습니다. "그리하여 세상이 믿게 하려는 것이다."

모든 것은 신이고, 모든 것은 인간입니다.

이것은 바로 성 호세마리아가 사제 서품을 받고 이틀 후에 거행한 첫 미사 후에 경험한 일이었습니다. 첫 번째 미사는 사라고사 대성당의 기둥의 성모 마리아 성당 제대에서 큰 헌신으로 거행되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성모 마리아의 특별한 현존으로 풍요로워진 이 아름답고 축복받은 장소에서 미사를 거행하며 그들의 사제직을 시작하는 많은 사제들과 마찬가지로입니다.

우리 성인은 거룩한 미사 직후에 사목적 헌신, 곧 사명이 따른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모든 사제는 하느님의 것이고 모든 사람의 것이기 때문에 사명, 하느님 말씀의 선포와 증거, 성사 거행, 사목적 배려와 자선 활동을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제는 거룩함의 길을 잃을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 호세마리아는 주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거룩함에 대한 부르심을 실천하고 복되신 동정 마리아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느님의 어머니요 우리의 어머니이신 분께서 우리를 보호하시어, 우리 각자가 기도생활 안에서 충만한 믿음과 성령의 은사들으로써 교회에 봉사하게 해 주시기를 빕니다." (성덕을 향하여, 하느님의 친구들, 316).

감사합니다.